

만화로 본 천삼군에서 야호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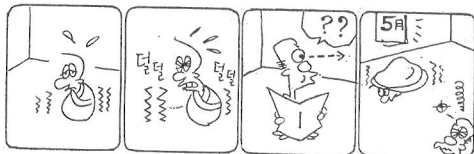
▲자들까? 말까?



▲학외폐적 풍토 지양 실패.



▲5000원 객관 표점관행 거점한 정·영 부패의 영향이 부각되는데 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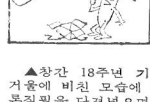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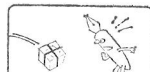
▲잔인한 4월의 개념이 이제는 5월로 바뀌어야-



▲다스 시끄럽기는 하지만 지백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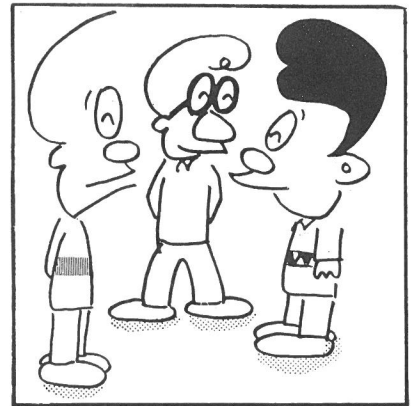
▲전혀누가 부패에 관해서



▲항간 18주년 기념 거울에 비친 모습에 정 본의미를 다져냄으로-



▲88년 총선당시 부정선거를 풍타



▲80년대를 풍자했던 우리들의 친구 우로부터 어거지, 천삼군, 야호군



▲16년만의 국정감사중 80년 언론보도합 문제의 거론을 지켜보며



▲내가 실친 정도의 선거 풍토는 단연히 심



▲부정·부패·부도리 불신입니다.

민족과 함께 50년, 세계와 함께 21세기

세계초일류기업으로— 신인류시대로—

2000

1988

1988

1988

삼성

삼성 50

첨단기술, 첨단경영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미래 - 이것이 삼성이 실현해가는 21세기비전입니다.

창립 50년을 넘어 창조적 21세기로—
삼성이 "제2의 걸림"을 신인류시대 다짐한 세계초일류기업으로의 발전의 변신을 시작합니다.

146개국에 이르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잇는 기업규모의 국제화로—
반도체, 컴퓨터, 광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공학 등 첨단미래산업의 개발을 통한 사업구조의 다각화로—
장요적 인쇄와 안정적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하이 일보다 질을 추구하는 3호형 경영시스템의 정착화로—
기업규모, 사업구조 경영시스템이 완벽하게 3화일체를 이루면서 21세기비전을 실현해가는 3호—
삼성은 다가오는 신인류시대의 중요와 특징을 생각하는 세계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삼성

특집 나도 한마디

이점을, 신문을 위해...

멋진 포용을 꿈꾸며



이 현욱
(연출부장)

하루에도 몇 번의 날이 올 때마다 주정병이 오놀도 오놀도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한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좋아한다. 주정병이 오놀도 오놀도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한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좋아한다. 주정병이 오놀도 오놀도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한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좋아한다.

얼마나 자신있게 발을 내딛었는지...



정 동 현
(예술부장)

어떻게 해서 첫발을 내딛었는지 모르지만, 300호의 지평에 발자국을 남겼다는 생각은 지금도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자신있게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욱더 자신있게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욱더 자신있게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욱더 자신있게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병 환
(기획부장)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초없이 가져버린 순진했던 여자애



이 신 아
(문화부장)

기초없이 가져버린 순진했던 여자애...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역사적(?)인 사랑



김 선 아
(승기자)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역사적(?)인 사랑...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녀석들



박 민 상
(승기자)

놓치고 싶지 않은 녀석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모두를 사랑한다



오 태 연
(승기자)

이 모두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꺼թ씩 꺼내



임 은 실
(승기자)

한꺼թ씩 꺼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머리가 멍할 정도의 인크벤트



장 연 미
(승기자)

머리가 멍할 정도의 인크벤트...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공감을 찾아서



조 현 돈
(승기자)

나의 공감을 찾아서...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금세 떨쳐버릴수 없는 족쇄가 되어



강 현 회
(승기자)

금세 떨쳐버릴수 없는 족쇄가 되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신문사의 번잡함」 속에서...



김 은 진
(승기자)

어김없이 찾아드는 「신문사의 번잡함」속에서...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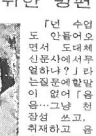
꾸깃짐과 질척속에서 오늘의 영광이



박 상 수
(승기자)

꾸깃짐과 질척속에서 오늘의 영광이...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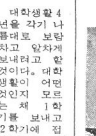
멋진 대학인이 되기위한 방편



임 경 아
(승기자)

멋진 대학인이 되기위한 방편...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사는 발로 쓴다



최 규 일
(승기자)

기사는 발로 쓴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각 출발은 이제 그만!



최 경 규
(승기자)

지각 출발은 이제 그만!...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신문의 성숙함을 자랑하며



황 순 정
(승기자)

우리 신문의 성숙함을 자랑하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령300호를 맞이하여 좀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제신문사 기자일동—

